

美 무인기 '그레이 이글' 군산배치

감시 능력 특화 MQ1-C 기종 2~3대 내년 초 가동 예정... "북한 도발에 대응" 분석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 공군기지에 무인기를 영구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미 국방전문 성조지와 CNN,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감시 능력에 특화된 무인기인 MQ1-C '그레이 이글(Gray Eagle)'을 한국에 배치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군과 미 공군 간의 조율을 통해 군산 공군기지에 '그레이 이글'을 영구히 배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조지는 주한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배치될 '그레이 이글'이 내년 초 가동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를



그레이 이글

신도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공격드론이 내년 초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게리 로스 중령은 '그레이 이글' 2~3대를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과 이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병력은 제2보병사단과 제2전투항공여단에 배속된다. 일반적으로 '그레이 이글' 드론 한 대를 관리 유지하는데 약 10명의 병사가 필요

하다. 주한미군(USFK) 측은 이번 공격드론 배치는 전 세계 미군의 정보력 강화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 배치는) 미군 사단마다 '그레이 이글' 한 기를 배치하려는 미국 방부 계획의 일부"라며 "무인기는 주한미군과 한국 동맹군의 감시와 정찰, 첩보 능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 이글'은 미군이 알카에다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투입해 악명을 떨친 MQ-1 프레데터 드론을 감시 특화로 개량한 기종이다.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드론인 '그레이 이글'은 최대 24시간 동안 최고 280km로 비행할 수 있다. 한반도 전

역을 정찰하고도 남은 비행능력이 있다. 감시특화 드론이라고 해서 전투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약 8km 떨어진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소형 정밀유도탄 바이퍼 스트라이크를 각각 4발씩 탑재할 수 있다. 유사시에 북한의 주요 표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CNN에 따르면 미군이 드론 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즉 일주일 전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도 이날 브리핑에서 "(드론 배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신뢰할만한 안보위협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방어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시

도내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 72%

최인정 의원, "성비 불균형 해소 대안 마련해야"

도내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초등학교 남녀 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 교사는 8,002명이며, 이 가운데 남교사는 2,219명, 여교사는 5,783명으로 여교사의 비율이 약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초등학교(421곳) 중 여교사 비율이 75% 이상인 초등학교는 1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여교사 비율을 보면 전주 82.84%로 가장 높고, 익산 77.93%·김제 74.72%·정읍 70.46%·군산 67.93% 등이다. 반면 여교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장수(44.17%)로 나타났다.

또 남교사가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학교는 5곳에 달하고, 전주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교사 41명 중 남교사가 단 한 명이 있는 곳도 있었다.

최인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인 것은 맞지만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창의적 체험학습이나 자유학기제 등으로 학생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남교사의 역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의 성비불균형의 차이를 넘어 교육현장에서 적절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받아야 할 학생의 입장과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화이트데이 맞아 꽃 소비촉진 캠페인 나서

전북도와 전주화훼인연합회가 꽃 소비촉진 캠페인에 나섰다.

전주화훼인연합회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초콜릿 대신 꽃을 선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청 후생관 앞에서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꽃 소비촉진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참석해 꽃 소비 캠페인에 나선 전주화훼인연합회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꽃을 구입했다.

또한, 전북도는 꽃 소비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꽃 소비촉진에 나서 계획이다.

특히 도청, 시군은 물론 경찰청, 교육청, 우정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1 table 1 flower' 운동과 직원생일에 꽃을 선물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화훼인연합회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도청 후생관 앞에서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꽃 소비촉진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참석해 꽃 소비 캠페인에 나선 전주화훼인연합회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꽃을 구입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해야"

김대중 도의원

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14일 제34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 피해 또한 크다"며 "민간 화재보험의 경우 전통시장 평균보험료가 500만원에 달해 화재보험 가입 점포수가 전체의 36%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세상

인들의 화재공제에 가입할 때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 위성을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화재보험 가입비는 조례를 제정해 지원규모, 방법 등을 규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며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원규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청, '산업단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은 14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해양수산청, 새만금환경청, 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산업단지 매립 촉진, 군산항로 준설, 3공구 대형 개발의 조

속한 이행과 무산 시 대안 모색, 입주 기업 지원 등과 관련해 기관별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새만금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군장항로 준설과 3공구 대형 개발 이행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산업단지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최적의 사업 추진 전략을 제

시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해양수산청은 군장항로 수심이 10.5m까지 확보되도록 2018년까지 준설해 줄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하면서 3공구 대형개발 무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관리의 기본 계획과 관리 업무의 범위와 착안 사항 등에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새만금청은 산업단지 1공구의

기관별 현안 점검 효율적 협업 방안 논의

공공시설을 군산시에 이관하도록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2공구에 입주한 기업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일부 준공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한, 지난 입주 기업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의 진출입로에는 파이(PE) 드림과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향후 안전 사고 예방과 환경 관리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환경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26억 투입

전북도가 환경분야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및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26억원을 투입해 29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해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4개 시·군에서 170명을 채용한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상수원 주변 금지행위와 환경감시, 계도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읍·임실·진안·무주·장수·부안 등 6개 시·군에서 12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시군별로 3월중 채용절차를 거쳐 4월부터 본격 활동할 계획이며, 채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재용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분야 일자리 사업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한 전북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 사업"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